



사람은 얼마의 재물을 필요로 하나?

(본문 : 눅 12 : 13-21)

임 석 운
(여의도 교회 목사)

본문은 예수님께서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써 우리에게 바른 물질관을 교훈하여 주심이다.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재물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사람을 미혹하는 물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재물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고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 베이컨은 말하기를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또 “돈은 비료와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였다. 재물이라고 다 같은 재물이 아니다. ① 구슬땀을 흘려 얻은 재물과(잠 8:18-21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② 반대로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잠 21: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의 가치는 천양지차라 하겠다. 또한 재물은 장구히 지속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일시적이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얼마의 재물을 필요로 하나?

1. 현세의 재산의 가치는 인정해야 한다.

(1) 금전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위대한 기능을 발휘한다.

현재의 상태에서 재산이 필수적 기구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불행을 행복하게도 하고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는 저력도 지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을 외치고 있다. 지난번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有錢無罪, 無錢有罪”라고 외치던 소리도 이런 범주에서 나온 말이라 하겠다.

① 돈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며, ② 돈은 헐벗은 사람에

게 의복을 만들어 제공해 주며, ③ 돈은 집 없는 사람에게 좋은 저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사람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다. 그 뿐 아니라 돈은 병든 사람을 치료 받게 하고, 무식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 지식인이 되게도 하는 것이다.

(2) 돈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고 절망에 빠뜨려 비극적인 사람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만들어 낸다. 로마 격언에 돈은 바닷물 같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갈하게 한다는 뜻에서 비유된 말이라고 하겠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② 부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만들기 쉽다. 돈 때문에 경쟁심을 유발케 되어 의리를 배반하게 된다. 따라서 상호 불신하는 사회가 되고 사랑이 메마른 사회를 조성하게 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는 고뇌와 자책에 시달리게 된다.

2. 어리석은 부자

(1)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부자다.

① 거짓으로 재물을 모음이다. 즉 재물을 모으기 위해 속이는 죄다. ② 강포함으로 재물을 모음이다. 이것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웃의 재산을 파괴하여 그의 인격을 공격함이다.

잠 21: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오늘의 ‘5공 비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약 5:4에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의 빈부 격차나 비리, 노사 분규는 이런 데서 야기된 것이라 하겠으며 또 이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라 하겠다.

(2) 본문의 부자는 왜 어리석었는가?

그 이유는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아니하였어도 ①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걸로 착각했고, ② 영혼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중히 여겼고, ③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고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가 없었고, ④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결과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도 죽음을 재촉하는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우리 모두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계해야겠다.

3. 우리는 과연 얼마의 재물을 필요로 하나?

(1) 재산은 정당히 얻어질 때만이 영속적이다.

잠 13:11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소모되고 부정한 소득은 손가락을 태운다. 즉 벼락 부자는 영혼의 유익 면에서 볼 때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

(2) 자족하는 생활의 기준

톨스토이의 단편에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있다. 그 내

용은 가난한 농부 바흐이 어느 중개인의 소개로 빠시카르족의 추장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를 해가 돈을 때에 출발하여 해가 질 때까지 바흐이 다녀서 표시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했다. 바흐이 지주가 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로 알고 전력으로 달리어 많은 땅에 표적을 했다. 해가 석양으로 기울어 갈 때 최후의 사력을 다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많은 토지를 얻기 위해 달렸다. 너무 힘이 지쳐서 종점에 도착하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다. 추장은 부하를 시켜서 그 땅에 묻어 주었다. 과연 바흐이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였는가? 결과는 수만 에이커가 아닌 무덤 자리 하나뿐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서 얼마의 재물이 필요한가? 억만 장자의 재산도 아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딤후 6:8). 우리 모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미혹되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므로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자.

* 표지 감상 [중생과 성숙]

갓난 새끼 두루미, 아직은 모양새가 보잘것 없지만 그 엄청난 과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을 부여 받았다. 멀지 않아 성큼성큼 걸을 수 있는 긴 다리로 땅을 딛고 그 흰칠한 키를 과시하며, 탐스런 깃털-창공을 날을 수 있는 멋진 날개, 품위있고 수려한 모습의 어미 두루미로 성장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미숙한 그대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성숙-성화되어 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생산, 생명, 부활, 소망, 성장의 이 좋은 봄의 계절에 더더욱!

— 최 —